

의 것을 보겠고 이보다 더 늦추어 十九世紀末의 所作이 본 慶國寺佛幀으로 짐작된다. 佛幀左右에 있는 八相圖의 銘文이 光緒十三年 丁亥(一八八七)로 있으니 이 佛幀도 同時期에 複作되어 奉安된 것으로 볼도 過眼이 아닐줄 본다.

註

① 現在 周知시킨 것으로 예컨대 龍門寺, 尙州 南長寺, 實相寺藥水庵 開慶 大乘寺, 서울 慶國寺 등 五個를 들 수 있다.

② 極樂寶殿이란 主尊이 阿彌陀佛이어야 할 것이나 도리어 阿彌陀佛은 後佛幀의 主佛로서 表現되어 있다. 本寺의 禮拜對象은 佛보다 佛幀이 比重을 차지한다고 할 것이다.

③ 考美 七卷七號 參照

※ 參考에 使고자 藥水庵佛幀을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彌勒菩薩 觀音菩薩

日光菩薩

迦葉尊者 文殊菩薩

主 佛

阿難尊者 普賢菩薩

月光菩薩 勢至菩薩

地藏菩薩

岩寺洞 櫛文土器遺蹟 發掘概要

金光洙

서울大學校 師範大學 歷史科에서는 지난 八月二十一日부터 二十九일까지 八日間 市內 城東區 岩寺洞 江岸의 櫛文土器遺蹟을 發掘하였다. 作業에는 在學生全員이 參加하였으며 同大學 李元淳教授와 檀國大學校

第九卷 第十一號 通卷 百號

博物館長 鄭永鎬教授가 指導하였다. 筆者도 發掘에 始終 參與하였음으로 이제 報告書에 앞서 當時 發掘 狀況을 略報코자 한다.

岩寺洞 櫛文土器遺蹟은 오래 前부터 學界의 注目을 받던 곳으로 지난 六月에는 國內 數個大學校의 合同發掘이 있던 곳이다. 따라서 詳細한 地域說明은 略하기로 하고 다만 이번 發掘한 곳만을 表示하면 岩寺洞所在의 獎忠高校 球場의 西南角에 接한 自然堤防의 一部이다. 이것은 當時 連日 賣土되고 있어 表土로부터 七〇cm——二〇cm가량의 깊이로 開析되고 있었다. 그 附近에는 흙의 搬出에 依하여 包含되었던 遺物이 多數出土되어 散亂되고 있었으며 흙을 싣는 人夫들도 이곳에서 다른 地域보다 많은 土器片이 出土된다고 하였다.

現地到着은 二十二日 下午 五時頃이었으나 宿所準備와 雨天關係로 實際發掘은 二十三日 午前十時頃에야 始作되었다. 먼저 基點을 定하고 開析되고 있는 地域의 中央으로부터 南西向 即 江의 흐름에 平行하여 下流쪽으로 幅一・五m의 트레치를 前進시킨바 約三m地點에서 石造爐址의 一角을 發見하였다. 그리하여 一旦 作業을 中止하고 이 爐址를 中心으로 一邊長 八m의 正方形의 地域을 測定하고 本格的인 作業을 하였다. 이 地域은 前述한 바와 같이 그 大部分이 상당히 除土되었으며 當時의 地面도 고르지 못하였다. 發掘이 進行됨에 따라 많은 土器片이 若干의 石器類와 더불어 出土되었는데 土器는 主로 灰色土器와 櫛文土器가 교란된 狀態에서 出土되다가 下部에서는 櫛文土器만 出土되었다. 石器는 磨製의 石鏃과 石斧片 그리고 打製의 石器 등이 出土되었다. 表土로부터 約九八cm 以下面에서 특히 깊이 除土되었던 球場과 接한 部分을 除外하고는 堅穴住居地의 外廓線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始作하였으며 圓形으로 直徑이 約五m—六m가량 예상되었다. 二十七日에는 爐址가 놓여있는 表土로부터 約一八〇cm되는 最底面까지 發掘을 完了하였다. 爐址는 넓직한 片麻岩石을 세워 짜맞춘 것으로서 直徑約七〇cm의 圓形에 가까운 正方形이었으며 住居地의 底面, 大體로 中央에 設置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地域을 A地區라고 表示하기로 하였다.

한편 二十四日에는 A地區의 住居地의 輪廓이 들어남에 따라 다시 A

地區로부터 東北向 卽 江과 平行하여 上流쪽으로 六 m 떨어져 역시 같은 方向으로 너비 二·六 m 길이 一五 m의 트렌치를 넣었는데 이 곳은 트렌치의 西南端 卽 A地區쪽으로부터 約 四 m 가량의 部分만 開析되었고 나머지 大部分은 原來的 表土를 維持하고 있었다. 二十四日에는 表土로부터 五〇 cm 면까지 翌日에는 九〇 cm 면까지 發掘하였는데 대체로 表土下 二〇 cm 면으로부터 遺物이 出土되기 始作하였다. 계속 發掘한 結果 트렌치의 東北端으로 부터 대략 九〇 cm — 一〇 cm의 西南向으로 기울어지는 完만한 傾斜를 보이며 遺物層이 끝남을 알았다. 그 밑에서는 黃色 砂質 土가 露出되었으며 다시 幅 一 m 길이 六·一 m의 트렌치를 넣고 그一部는 表土로부터 三·五 m 가량이나 掘土하였으나 遺物은 一切 出土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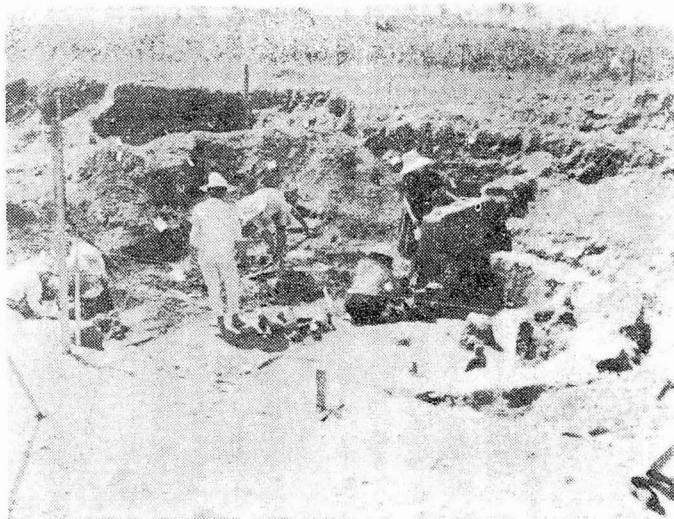
그러나 트렌치의 西南端으로 부터 大략 1/3 地點까지는 遺物이 계속 出土될뿐만 아니라 진흙과 돌로된 爐址의 흔적도 露出되었으며 南南向 卽 球場쪽으로 多數의 遺物이 密集되어 出土되었음으로 그 쪽으로 開析되지 않은 部分을 約 五 m 擴張하여 發掘하였다. 그리하여 보다 큰 진흙과 돌로된 爐址의 遺構를 確認하였으며 表土로부터 大략 九〇 cm — 三〇 cm 사이에 있었다.

트렌치와 그 擴張地域에서도 많은 土器가 出土되었는데 櫛文土器와 더불어 後代의 灰色土器와 黃色土器가 거의 攪亂된 狀態에서 出土되었으며 대체로 上層에서는 後代土器 下層에서는 櫛文土器가 數의으로 보다 많은 比率로 出土되었다. 그外 土管形의 網錘 把手 管玉 連珠石 石鏃 등의 遺物이 出土되었으며 上層에서는 鐵製釘자와 더불어 用途未詳의 若干의 鐵片이 出土되었다.

그런데 二十八日 트렌치의 西南部分을 表土로부터 一·五 m 면까지 整理한 結果 다시 堅穴住居地의 外廓線이 若干 露出되었음으로 同住地가 位置하였으리라고 豫想되는 地域을 劃定하고 擴大發掘하였다. 그리하여 또 하나의 堅穴住居地를 確認하였다. 이 地域은 거의 球場과 같은 면까지 이미 除土되어 있었기 때문에 上層의 遺物은 散亂되었고 主로 櫛文土器片만이 出土되었다. 그리고 表土로부터 一七七 cm 가량 下部에서

住居地의 中央에서 南向으로 치우쳐서 진흙과 돌로된 爐址의 흔적이 露出되었다. 그러나 二十八日에는 그 下部 表土로부터 約 二〇〇 cm 되는 同住地의 最下面에서 四六 cm × 五〇 cm 程度の 長方形의 片磨岩石과 礫石一個로된 爐址가 그 中央部에서 發見되었다. 그리고 이 住居地는 橢圓形으로 나타냈으며 表土 下一五〇 cm 면에서는 大략 長徑이 約 五 m 短徑이 三·五 m 가량 되었다.

以上으로 發掘을 마치기로 하고 A地區를 除外한 發掘地域을 B地區로 부르기로 하였다. 그리고 二十九日 午前中에 B地區에 對한 最後의 整理作業을 하고 午後에 이번에 發掘된 A와 B地區의 堅穴住居地의 爐址를 解體하여 撤收하였다.



義城 海望山 石窟寺院

文 明 大

義城에 石窟寺가 있다는 말을 들은 것은 지난 八月 二十三일 浮石寺